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로선과 정책수립에서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신 탁월한 정치가

김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과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0권 302~303페이지)

로선과 정책수립에서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두가지 문제에 귀착된다. 그 하나는 로선과 정책을 규정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나라 혁명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성의 혁명리론과 경험에 대하여 창조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무엇보다먼저 어떤 경우에도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조선혁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신것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풍모는 세계적인 동란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의사가 집대성되어있고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한 주체의 사회주의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신데서 높이 발현되였다.

1990년대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이후 사회주의운동안에서 혼란이 조성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개혁》, 《개편》정책이 마치도 《국제사조》인듯이 생각하면서 동요하거나 《정책전환》을 들고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자주로선에 기초하여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로선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9(1990)년 1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자》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세운 우리 식의 사회주의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기때문에 오늘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로선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는 199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자본주의 암흑세계에로 되돌아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인민들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것을 계기로 더욱 굳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키지 못한탓에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

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라고 하시였으며 주체81(1992)년 11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와 반동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책동이 아무리 우심하게 감행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오직 그길로만 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로선과 정책수립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결코 눈앞의 리익이 아니라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근본리익, 자주적요구와 리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선군혁명로선을 정립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앞에는 참으로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군사정치적도발과 경제제재책동 그리고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로지 우리 인민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무궁한 행복만을 생각하고계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길은 오직 선군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철의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신념과 의지에 기초하여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데 이어 감나무중대, 길영조영웅비행대대 등 천리방선의 초소들과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군대를 시대와 혁명을 선도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군군인들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일반화해나가시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시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 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정치사상적, 국가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고 그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도록 하신데 기초하여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천명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선군혁명로선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단호한 대응앞에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압살하려고 것처럼 미쳐날뛰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책동이 물거품으로 되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새가 온 사회에 일반화되어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돌진하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혁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언제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신것이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떠난 로선과 정책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것처럼 자기

나라의 현실을 떠난 로선과 정책 역시 백해무익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변화된 시대적환경과 조건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변화된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92(2003)년 8월 28일 당, 국가, 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제시하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명실공히 조선혁명의 터전에서 태어난 전략전술이며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이 반영된 철두철미 우리 식의 전략전술이다. 이 위대한 우리 식의 전략전술이 있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세기와 년대를 주름잡으며 강성부흥의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줄달음치고 영웅적인 창조의 서사시를 시대와 력사에 뚜렷이 새겨갈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다음으로 기성리론과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교수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그 어느 나라 혁명이나 꼭 들어맞는 리론과 경험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며 기성의 리론이나 남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사실상 자기 나라 현실과의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선행리론과 경험은 그것이 어떤 구체적조건과 어떤 계급투쟁의 환경에서 나왔는가 하는것을 알고 자기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원칙적립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울데 대한 선군후로의 원칙은 선행리론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작성제시된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맑스주의혁명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았다. 맑스는 19세기 중엽 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관계를 분석하여 로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것이 어길수 없는 혁명의 공식처럼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앞으로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다.

변화된 시대적환경과 현실적조건은 로동계급과 그 역할에 관한 선행리론이 오늘의 현실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때 어디에서나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고 보는것은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적인 관점의 표현이며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신것은 우리 혁명에서 인민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한것이다.

인민군대는 우선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이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목숨으로 수호하고있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도 다른 어느 사회집단도 대신할수 없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이며 가장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인민군대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위력한 집단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수호정신이 가장 투철한것도 인민군대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과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이 가장 높은것도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 전투적기백에 넘쳐있는 혁명대오이며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 집단주의정신이 높고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이 제일 강한 부대이다. 그러므로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응당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성리론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변화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정립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우리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그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으로 보나 마땅히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울데 대한 선군후로의 원칙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선행리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작성제시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8(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가 건설하여야 할 강성국가에 대하여 뚜렷이 정식화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인류사에는 강국, 대국으로 명성떨친 나라들이 적지 않았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발전수준과 군사력의 크기에 의하여 보는것이 지난 시기 강국, 대국에 대한 일반적견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그리고 경제의 발전정도나 군사력의 크기에 의해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모든 면에서 훌륭히 실현시켜줄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힘을 가진 나라라야 참다운 강성국가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견해를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말하는 강성국가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다시말하여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높은 존엄과 위력을 지닌 강대한 나라,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고 규정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높은 존엄과 값높은 생활을 누리는 참다운 강국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강성국가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여야 한다는것이 강성국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견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처럼 기성리론과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장구한 기간 기성의 리론과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신것은 참으로 경탄할 력사적사변이다.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인민이라는 자주의 신념을 한생의 정치신조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현대정치사의 기적이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로선과 정책수립에서 독자성을 견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령도풍모는 현세기의 가장 결출한 령도자이시며 또 한분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우리는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시켜오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